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

고향가는 비행기 길

김성국 (2003년 10월 26일, 고국가는 길에)

겨울내복 벗던 봄 날
 흙 말라붙은 삼 들고
 막 자란 토끼풀 위로 오줌싸며
 철 개던 동네 그 산을 올라 보겠습니다

더운 바람이면 가슴 풀어 해치고
 찬바람이면 옷깃에 얼굴 묻던
 고향바람에 감기들고 싶은
 바람조차 반가운 길을 걸겠습니다

낮에는 사흘 뱃길 목계장터 떠돌이 되어 보고
 밤에는 메밀꽃에 취한 시인의 가슴되어
 물레방아간 그 처녀있는
 봉평장에 서 보겠습니다

현금 많이 들어오면 마루 칸다고
 부푸러기 일어난 가마니에 앉아
 목청 높혀 찬송 부르던 어린 날의 교회
 가마니 같이 다 헤진 심정으로 앉아 보겠습니다

센베이 과자 자주 사들고 오시던 내 어릴적 아버지
 틀니 낀 채 드시라고
 박하 사탕 몇 봉지 사들고는
 놀라지 마시라는 조심스런 발걸음으로
 당신에게 가겠습니다

그 산, 그 빛깔, 그 예배당, 그 사랑이 하도 그리워
 잠들지 않은 잠을 들어 보려해도
 마음은 이내
 그리움에 아파 옵니다



◀그뎌 그랬지▶ 써니텐
 '사과맛이 그대로 써니텐' 과일맛이 그대로 써니텐, 마셔봐요 써니텐 정말 좋아요 해태써니텐 ♪♪"
 과일음료가 흔치 않던 시절에 나온 "써니텐". 과일맛과 탄산의 특쓰는 맛이 범벅되어 인기있던 음료였습니다. 지금처럼 폼나게 들고 다니는 스포츠 음료병은 아니었지만 다시 손에 들고 꿀꺽 소리내며 마셔보고 싶습니다. 그때 경쟁제품이던 킨 사이다,미린다가 아직도 있는지 궁금합니다

| | | |
|---|---|--|
|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삼과 교회의 주인 | '2003년 교회생활'건강한가정,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| 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성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애 |
| 제 5권 45 호 | 기초성경공부이수, 정장으로 예배, 남 이야기 금지 | 2003년11월 9일 |
| ☎520-9464, 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) calvary.ca.to | | |

어느 제직회 실황 중계



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제직회를 열었습니다. 제직회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서로 자제하고 있는데 제직회에 처음 참석한 신장 집사님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.

<신장집사>: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해서 우리도 먹고 이웃도 같이 나눠먹으면 좋 겠습니다.

<A장로>:좋은 생각입니다. 우리도 먹고 전도도 활검 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<B장로>: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떡을 만들어 먹습니까? 요즘은 먹을 것이 많아서 떡을 만들어도 먹지 않으니 만들지 맙시다.

<C장로>:그래도 그렇지 추수감사절은 교회의 명절인데 떡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경로당도 갈다주면 좋겠습니다.

<D장로>:다 좋으신 말씀인데 뭐 그것 가지고 다투면서까지 떡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? 만들지 맙시다.

<E장로>:요즘 가뜰이나 교회가 인색하다고들 하는데 떡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.
 D,E,F,G 안수집사 : 만들자. 만들지 말자.....

이렇게 떡을 만들 것인가 만들지 말 것인가 서로 자기 주장을 내 세우다가 결국은 떡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무려 다섯시간이 지나갔습니다.

그 때...목사님께서 '그러면 무슨 떡으로 할까요?'

A집사:백설기떡으로 합시다.

B집사:요즘 세상에 백설기떡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인절미로 합시다.

C집사:교회에서 무슨 인절미입니까? 팔시루떡으로 합시다.

D집사:송편으로 합시다.

E집사:가장 쉬운 절편으로 합시다.

그 외 김, 이, 안, 박, 정 안수집사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했습니다.

<목사님>:그러면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는데 종류는 백설기로 결정되었습니다. 이상으로 제직회를 마치겠습니다. 서기 장로님께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서기장로>:03년 0월 0일 12시 30분에 회의를 개최하여 일반적인 안건을 심의한 후 13시에 신장집사님께서 추수감사절에 떡을 만들자는 안건을 내신 후 18시에 떡을 만들기로 결정하고(다섯시간 소요), 18시에 무슨 떡을 만들 것인가의 의견에 여러 제직의견을 수렴하여 백설기떡을 만들기로 목사님께서 선포하고(두시간 소요) 제직회를 마치니 20시 정각이었더라(일곱시간 소요). 이에 이어서 저녁 예배에 들어가다. -이상 끝-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있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
| 영광송 Gloria | "Calvary" | 다 같이 |
|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| | |
| 용서의 선언 Proclaim |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| 인도자 |
| *찬송 Hymn | 37장 | 다 같이 |
| 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| 25 (시편 103편) | |
| *신앙고백 Apostle's Creed | 사도신경 | |
| 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 | | |
|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| | 주일학교 |
| 찬송 Hymn | 500장 | 다 같이 |
| 기도 Prayer | | 최재학 안수집사 |
|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| 고전 13:4-7 | 인도자 |
| 성가대 찬양 Choir | | 나무심자가성가대 |
| 설교 Sermon | 이로운 분노를 담은 사랑 | 김성국 목사 |
| 찬송 Hymn | "사랑의 송가" | 김미애.윤주야 |
| 헌금 기도 Offering Pray | | 인도자 |
| 응답송 Response Song | '여기에 모인 우리' (1절: 권정호. 강현정 성도 가족. 2절: 다같이) | 다 같이 |
| 축도 Benediction | | 김성국 목사 |

(예배를 마친후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
◆11월의 예배위원◆

| 일자 | 주일기도 | 헌금위원 | 가족찬송 | Tea Time |
|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2 | 지찬영 | 고성일 | | 김현수. 김홍구 |
| 9 | 최재학 | 권용일 | 권정호. 강현정 | 박병민. 박 실 |
| 16 | 김교섭 | 김경숙 | 정종일. 이선애 | 박일영. 박재양 |
| 23 | 김순자 | 김경일 | | 박태원. 서동완 |
| 30 | 김종건 | 김동숙 | | 양경배. 원성호 |

'2003년 교회표어
"건강한 가정, 건강한교회"(마 18:4)
부모의 기도받는 자녀
남의 형편 해아리는 신앙

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
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
*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
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

주일예배: 낮 12시 | 수요일예배: 저녁 7:30 | 아동.학생부: 주일 낮 12시 | 청년부: 토 저녁 7시

1. 교우소식

<입원> 원혜림(원성호, 김재연 집사 딸). Middlemore HP. ☎ 0274552288

<장례> 정관영 집사 부친 장례. 1일(토). 대전에서 엄수

임숙경 집사 친정 모친 장례. 3일(월). Auckland Memorial Park

<등록하셔서 갈보리가족 되심을 환영합니다>

*김정애 집사. 유리. 유진 ☎ 302-0982 ☒ 1PA. 160 Symonds St. City

2.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: 결식자 급식봉사

<자원봉사자>: 김미애. 김순화. 김영경. 조용건. 정이지. 한상미. 한상순.

*어제 토요일로 2003년 우리교회 담당을 마쳤습니다. 타인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. 내년에도 그들은 도움을 기다릴 것입니다.

3.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: 10일(월) 오후 1시. 장년부실

*살아가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도 기도없인 살아갈 수 없기에 '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'는 수고롭다 못해 성스럽기까지 합니다.

4. 안수집사 정기모임; 14일(금) 저녁 7:30. 최재학 집사 자택

5. 수요일예배: 매주 수요일 저녁 7:30. 출애굽기 강해계속

**성경공부, **제자훈련등 이런 이름들은 이름만 다르지 결국은 성경말씀을 배우는 과정에 붙인 이름입니다. 과정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아닌 계속된 말씀과의 충돌로 성숙시켜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

6. 여성선교중창단 "살롬", 남성선교중창단 "익투스" 합동공연

(갈보리교회단원: 김영길. 김태우. 배기웅. 신경화, 유은주. 이규임)

<일시> 15일(토) 저녁 7시 <장소> Trinity Methodist Church

(474 Pakuranga Rd. Pakuranga)

엄마가 딸에게

자동차를 너무 더러운 채

다니지 마라

차의 수명도 단축되고

게으른 인상을 주게 된다

아버지가 아들에게

잠 잘 때는 머리를 찬 곳에 두어라

머리는 차갑고

가슴은 뜨거운 사람이 되라

그 반대인 사람 때문에

세상이 어지럽다